

시·민·과·소·통·하·며·함·께·만·들·어·가·는

# 과천시의회 소식

GWACHEON CITY COUNCIL NEWS



제 51 호 2017년 1월 26일 [www.gccouncil.go.kr](http://www.gccouncil.go.kr)

발행인 이흥천

편집인 김남일

발행처 과천시의회사무과

| 과천시의회 전화 02-3677-2521

FAX 02-2150-155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과·천·시·의·회·소·식

한눈에  
보 기

2면 의장 새해인사

3면 제218회 정례회  
· 개회사

4면 제218회 정례회  
· 조례심사 의결사항  
· 2017년 예산안  
계수조정

5면 제218회 정례회  
· 10분 자유발언

6면 제218회 정례회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10면 제217회 임시회  
의결사항  
· 주요 의정 활동사진

12면 ·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  
· 의회소식 무료구독  
신청안내



과천시의회 의장 이 홍 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는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혁신 속에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의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희망으로 가득찬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대표라는 일  
꾼으로서 과천의 발전을 고민하고 시민의  
곁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  
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  
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과천시는 현재 변화와 위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문제, 보금자리주택사업, 뉴스테이  
사업 등 시민들이 해결을 염원하는 현안사  
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를 기회로 삼아 성장기반을 다지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앞으로  
도 예전의 행정 도시로서의 위상과 함께 전  
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이어  
갈 것입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시민과 소통  
을 통한 당면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간담회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왔으며, 의원들의 역량강화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운영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시민  
들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 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시민 여  
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가슴으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공감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  
겠으며, 올해는 지난해의 모든 시련과 어려  
움을 시간 속에 묻어 버리고 서민들이 살맛

나는 세상,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  
들어 시민 모두가 성공하는 시대가 활짝 펴  
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제7대 과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2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는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혁신 속에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의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  
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를 거울삼  
아 반성하며 올해는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  
받는 의회, 소통 창구로서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갈 수 있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과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  
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  
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시민 모두가 활기차고 신나게 지낼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  
러분 모두 대길대운(大吉大運), 만사형통  
(萬事亨通)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 간 : 2016. 12. 5. ~ 12. 20. (16일간)

주요안건 :

- 2017년도 예산(안) 심의
-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각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 조례안 심의

과천시의회(의장 이홍천)는 2016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진)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본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2건에 대하여 심의하면서

- ▶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3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 ▶ 2017년도 예산안 등 3건은 수정가결,
- ▶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은 보류,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

- ▶ 2017년~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았다.

또한 윤미현 의원의 “민선6기 과천시장 공약사업 및 향후 과천시 미래비전”에 대한 시정질문과 시장의 답변을 들었으며, 12월 16일 1일간 제3차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 개 회 사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벽찬 꿈과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한 2016년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대표라는 일꾼으로서 과천의 발전을 고민하고 시민의 곁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이끌어 오신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시민과 소통을 통한 당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간담회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왔으며 의원들의 역량 강화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운영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7대 과천시의회 전반기를 잘 매듭짓고 후반기를 원만히 출범시켰으며, 시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의정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올해의 활동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늘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201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규모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겠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오가며 몸소 느끼고 연구·검토한 사항들이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안건과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이번 정례회가 알차고 희망찬 내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과천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민의에 바탕을 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소리를 존중하며 그 뜻이 과천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견제와 감시기능을 소홀히 하지 않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기관과의 협력적 소통을 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시민을 보듬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추위에 대비하여 동절기 시민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한 해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항상 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의회 의장 이 홍 천





## 제218회 정례회의 심사결과



### • 의결사항 - 원안가결 37건, 수정가결 3건, 보류 1건, 의견제시 1건

| 연번 | 안 건 명                                     | 의결결과 |
|----|-------------------------------------------|------|
| 1  | 2017년도 예산안                                | 수 정  |
| 2  |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 원 안  |
| 3  | 2017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 원 안  |
| 4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원 안  |
| 5  |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 원 안  |
| 6  |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 원 안  |
| 7  | 2017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 원 안  |
| 8  |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원 안  |
| 9  |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 원 안  |
| 10 | 2017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 원 안  |
| 11 | 2017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 원 안  |
| 12 |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원 안  |
| 13 |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원 안  |
| 14 |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원 안  |
| 15 | 2017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원 안  |
| 16 |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원 안  |
| 17 | 2017년도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원 안  |
| 18 |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19 |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20 |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21 |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보 류  |

| 연번 | 안 건 명                                 | 의결결과 |
|----|---------------------------------------|------|
| 22 |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 안  |
| 2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의견제시 |
| 24 |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 정  |
| 25 |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26 |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27 |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28 |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29 |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30 |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수 정  |
| 31 |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32 |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33 |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원 안  |
| 34 |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35 |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원 안  |
| 36 |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37 |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38 |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 안  |
| 39 |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 안  |
| 40 |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원 안  |
| 41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 안  |
| 42 | 2017년~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원 안  |

### •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실과명)     | 부 기 명                               | 당초예산액     | 조정(의회결정액) | 증 감 액      |
|---------------|-------------------------------------|-----------|-----------|------------|
| 계             |                                     | 2,696,750 | 770,000   | △1,926,750 |
| 기획감사실         |                                     | 125,850   | 50,000    | △75,850    |
| 사무관리비         | 이미지통합 홍보물 제작                        | 50,000    | 30,000    | △20,000    |
| 사무관리비         | 소셜네트워크 시스템 컨설팅                      | 10,000    | -         | △10,000    |
| 공공운영비         | 드론보험료                               | 850       | -         | △850       |
| 자산및 물품취득비     | 항공촬영용 드론                            | 15,000    | -         | △15,000    |
| 기타보상금         | 공익신고 보상금                            | 50,000    | 20,000    | △30,000    |
| 교통과           |                                     | 406,000   | -         | △406,000   |
| 시설비           | 버스정류장 개선 (29개소)                     | 406,000   | -         | △406,000   |
| 사회복지과         |                                     | 355,000   | 340,000   | △15,000    |
| 민간위탁금         |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산식변경) 400,000원 * 850명 | 280,000   | 340,000   | 60,000     |
| 민간위탁금         | 6.25참전유공자 의료비지원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통합)  | 75,000    | -         | △75,000    |
| 문화체육과         |                                     | 1,617,900 | 250,000   | △1,367,900 |
| 민간위탁금         | 과천누리마축제 (재단법인과천축제)                  | 400,000   | -         | △400,000   |
| 시설비           | 생활문화센터 조성                           | 267,500   | -         | △267,500   |
| 행사운영비         | 체험관광 상품운영(연중)                       | 40,000    | 20,000    | △20,000    |
|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 육상선수 퇴직금                            | 350,000   | 230,000   | △120,000   |
| 민간행사사업보조      | 과천 마사랑 승마대회                         | 60,000    | -         | △60,000    |
| 시설비           | 제2실내체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 500,400   | -         | △500,400   |
| 환경위생과         |                                     | 192,000   | 130,000   | △62,000    |
| 사무관리비         | 음식물 쓰레기 유료화 및 재활용관련 홍보 등            | 60,000    | 30,000    | △30,000    |
| 민간위탁금         |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 132,000   | 100,000   | △32,000    |



## 제218회 정례회 10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금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과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계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 바쁜 일정 중에 뜨거운 과천시에 대한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기자 분들과 과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과천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아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광화문의 시위도 함께하시고 모든 열정을 보여주신 시민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시는 교부단체, 불교부단체의 불확실성에 있으며 해마다 700억에서 900억가량 레저세로 들어오던 세입도 감축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과천시는 세수도 좋았지만 기반 시설이 모두 완비된 행정도시로 출발해서 과천시의 예산을 부담 없이 교육, 문화, 복지 예산으로 선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로 승격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시설은 낡고 현대화하거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가 동서로 확장되고 새로운 도심이 생겨나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계획과 재원 확충 방안 그리고 동서로 확장되는 도심이 기존 도심과 연결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이제 과천시의 최우선 사업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처리장 지중화 증설 사업계획입니다. 이는 이미 하수처리장 지중화 증설 기본구상용역을 발주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장기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뉴스테이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하나 총사업비 추산 800억 이상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하수처리비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자원정화센터의 지중화 및 증설사업 계획입니다. 자원정화센터를 지중화하고 그 주변 300m 부지를 잘 활용하면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과천시에는 그 효용가치를 매우 높일 수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따른 부담액이 최소 80억에서 100억 이상으로 이에 따른 기금을 예치하고 사업비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계획

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현 주택단지 및 새로운 도심 내 주차장 확보 사업계획입니다. 수십년 간 주택가의 주차난을 호소하고 주민 간의 갈등이 극심한 우리 시 상황을 고려할 때 주차장 확보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식정보타운이나 뉴스테이 개발계획에 주민 편익과 복지를 위한 도시기반 공공시설을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차고지를 확보하고 주택가 중심에 자리한 차고지를 이전하여 노선변경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함은 물론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의원 고금란

마지막으로 녹지축과 하천의 연결사업 계획입니다. 양재천, 갈현천, 막계천 등을 배령이천이나 홍춘천 등의 지역 소하천 14개와 연결하고 연결된 하천들이 다시 녹지축과 연결되어 과천 전체가 하나의 공간으로 완성되는 도시 재생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도시의 발전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표면만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과천시는 지난 12월 14일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단체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후세에 물려줄 자연이라는 자원을 교육, 문화, 그리고 도심재개발 사업과 잘 연계해야 합니다. 단지마다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

에 녹지축과 하천 연결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시민의식조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친환경 도시 과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현 시대의 녹지축과 하천의 연결사업은 경관이나 치수, 친수용도가 아닌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집중시키고 시민에게 여가를 제공하며 커뮤니티공간의 역할을 함으로써 문화와 경제발전의 견인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과천시가 동서로 확장돼 인덕원, 양재로 이원화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가장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심축이 되어줄 것입니다.

말씀드린 사업들은 변화하는 과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공공공간에 대한 새로운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재원운용 방안과 사업시행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18회 정례회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민선 6기 과천시장 공약사업 및  
향후 과천시 미래비전에 대한 질의



윤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흥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흥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칼바람이 살결을 에이는 2016년 겨울, 그러나 추워진 날씨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민심이 더 얼어붙은 현 시국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외교, 정치, 경제, 문화, 복지, 안보 전반에 걸쳐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1980년대로 후퇴했고 국민의 분노와 울분의 불길은 전국 곳곳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비상식적인 정치철학과 잘못된 정책판단,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권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2016년 겨울에 또다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2016년 오욕의 역사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은 피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평화시위는 전 세계의 언론이 보도할 정도로 자랑스럽고 위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5,0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그 국민의 힘은 국민을 내팽개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치권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

는 개인적으로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웠지만 정치인으로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정치를 계속해야 하는 자괴감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올해 과천시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개편을 비롯해 갑작스럽게 결정된 뉴스테이 사업, 풀리지 않은 우정병원 정상화 문제, 관광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에 따른 문제, 지식정보타운 분양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의 현안을 해결하고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무거운 과제들을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천시는 현재 市 승격 30주년을 맞는 자긍심과 더불어 또 다른 미래비전을 만들어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과천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관광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과 뉴스테이사업, 재건축사업, 화훼종합유통센터, 지식정보타운 건립사업 등은 과천시의 미래동력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업은 현미경 같은 검토를 통해 기획되어야 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런 작업이 뒤따르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손실은 물론이고 기형적인 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미래비전 사업은 계획단계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바로잡지 못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과천 화훼종합센터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은 얼마 전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이 두 개의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천시 북부권 일원에 들어서는 글로벌비즈니스타운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인 뉴스테이사업에 포함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현재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하는데 어느 부지에, 어느 규모로, 언제 사업이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은 시와 시의회, 국토부, LH, 화훼인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스테이사업은 올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과천시는 현재 과천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수립됐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민과 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각각의 사업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시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문제와 지식정보타운 분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천지역은 재건축사업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뉴스테이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착공과 입주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재건축사업과 뉴스테이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과천시는 1만 5천여 세대가 새로 공급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 하락이나 역전세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에 아파트 공급물량은 올해 27만 9천 가구이지만 내년도 36만 8천여 가구, 2018년 36만 8천여 가구로, 올해에 비해 9만여 가구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급물량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많은 언론이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의 33%를 차지하는 물량이 수도권에 공급과잉되어 역전세난과 함께 깡통전세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뉴스테이사업의 입주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붕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해 역전세난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과천시는 살기 좋은 도시에서 지옥의 도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국토부, LH와 협의하셔서 뉴스테이지구의 입주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과천시 향후 토지 이용의 효율과 세수확보를 위해서 뉴스테이사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정손실과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재정입니다. 재정규모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제약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올해 지방재정법을 강제로 개정해 과천시는 약 300억에서 400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 같은 잘못된 제도는 개선될 것이지만 당장 재정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3단지 방음벽 공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 관문체육공원 내 실내체육관 건립,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과천-위례선

신설철도 분담금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연차적 투자비가 천문학적 숫자에 달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천시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재정손실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는 미래의 세수확보를 위해 지식정보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세수입을 창출하고자 직접 분양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때 지식정보타운 사업으로 인한 과천시 수익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과천시는 토지조성 원가가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 분석은 어렵지만 과천시는 대략 200에서 300억 원의 수익을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위해 지난 2014년 LH에 500억 원의 계약금을 지출했고 경기도시공사와는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양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약 200억 원에서 250억 원을 수수료로 챙겨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LH는 지난 2년 동안 지장물 보상을 하지 못해 2년 동안 착공을 못했습니다. 또 경기도시공사는 그동안 홈페이지 제작 등으로 수십억 원을 집행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을 위해 투입될 시 예산이 얼마인지, 또 경기도시공사는 분양과 관련해서 10, 11, 12 필지 미분양 시 어떤 책임과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을 규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역사건립 시기와 비용, 공공용지 확보 및 예산마련, 인구 수 증가에 따른 복지비용 급증가에 따른 자원 마련 등 문제는 없습니까? 이러한 대형 사업들을 감당해 나갈 만한 행정력을 어떻게 뒷받침해 가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축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천시는 매년 축제에 대한 정체성 등의 논란으로 축제

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축제는 원래 개인 또는 집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 혹은 시간을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축제가 지역 기반 문화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경제적 가치와 함께 놀이 문화의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축제는 점점 대중적이고 효율적인 기획과 제작 방식을 활용하며 참여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유도하는 이벤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축제는 관람객들의 경험 방식에 따라 관람형 축제와 체험형 축제로 나눌 수 있다.” 이 내용이 사전적 축제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펼쳐지는 지역축제는 자그마치 1,2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일상의 축제문화를 지향한다는 영국의 650개에 비하면 우리나라 축제는 질적보다는 양적으로 너무나 팽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로 보면 안성 봄맞이축제, 전주 문화축제, 인천 벚꽃축제, 안산 거리극축제, 양산 들꽃축제, 부산 등꽃축제, 진해 자전거축제, 춘천 마임축제, 대구 거리마임축제, 영양 고추축제, 괴산 고추축제, 서천 주꾸미축제, 무창포 주꾸미 축제, 군산 주꾸미 축제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나 이들 축제는 다른 지역과 겹치거나 차별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전국 지역 축제 중 무주 반딧불축제, 함평 나비축제, 남원 춘향제, 부산 자갈치축제, 보령 머드축제, 강령 젓갈축제, 강진 청자문화제, 하동 야생차축제, 진주 남강 유등축제, 한산 모시축제 등은 지역 접근성과 문화적 의미, 브랜드 효과까지 얻는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의 축제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참여하는 보령 머드축제는 해외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보령 머드축제는 그동안 중국 대련머드축제, 스페인토마토 축제 연계행사로 ‘리틀 보령머드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또 보령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로토루아시에서 열리는 제1회 로토루아 머드축제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보령시는 단순히 축제 참가뿐만 아니라 1억 원 상당의 머드파우

더 수출은 물론 파우더 배합, 열처리, 에어바운스 등 제조·시설물 대여를 협의한 상태입니다. 보령머드축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갯벌을 활용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개선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냈으며 축제기간 동안 40여 만 명이 찾는 외국인들의 높은 참여를 바탕으로 신 한류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함평군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나비축제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에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축제를 보러 온 관광객들 덕분에 지역경제도 좋아졌다. 축제장 주차장은 오전이면 꽉 차고 축제장 주위와 읍내까지 차들이 넘쳐난다. 점심 때면 축제장 안은 물론 주위 상가까지 밀려드는 손님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식당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주말이나 연휴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다. 나비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100억 원이 넘는다고.” 실제 함평 나비축제 경제효과는 학술논문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개최된 지 4년밖에 안 된 태안 톨립축제와 빛축제도 성공적인 축제로 꼽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톨립축제와 빛축제 누적 관람객 수가 110만 명이 넘습니다. 톨립축제와 빛축제 연간 입장객 수는 2012년 톨립축제 12만 4,000명, 2013년 14만 명, 2014년 28만 3,000명, 2015년 55만 5,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해 태안 꽃축제가 ‘2015 세계 5대 톨립축제’로 선정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축제는 어떻습니까? 과천축제는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명칭과 정체성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은 물론 정치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칭은 거리극에서 한마당축제로, 다시 누리마축제로 바뀝니다. 10년 넘게 거리극축제를 개최해 온 과천축제는 거리극에 대한 명성과 정체성을 이어 왔는데,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축제의 내용이 전면 개편되어 거리극의 명성은 안산 국제거리극축제에 빼앗기고 말았습

니다. 축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명칭을 놓고 논란을 빚는 것에 대해 정말 한심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함평 나비축제와 보령 머드축제의 역사는 과천축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과천축제는 함평군이나 보령시 머드축제처럼 정체성이 없고 세수입도 창출 못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지역축제를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역축제를 지역기반 문화산업으로 인식하고,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놀이 문화의 관점에서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천축제는 축제의 명칭이나 방향 설정 등을 문화적 논리에 두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만 따지기 때문에 20년이 넘도록 집행부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축제는 시민들이 즐기는 것이고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행정기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농촌의 소도시에서도 지역축제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과천시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장님, 함평 나비축제와 보령 머드축제, 가평 국제제즈축제, 일본의 메밀축제 성과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반복된 과다 예산 운영과 정책에 대한 장기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 문화재단 운영 등 과천축제가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흥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7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신계용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6년도 제 3회 추경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신 이흥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윤미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과천 북부권 일원 지역발전을 위해 중심업무지구와 글로벌비즈니스타운이 포함된 강남벨트사업을 추진하고자 “과천 강남벨트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 과천 화훼종합센터가 사업성 저하로 민간사업 참여자가 없어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앞으로 추진되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다른 사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행정 환경 속에 국토부가 정부의 주거정책 일환으로 동 지역에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를 추진하면서 강남벨트 조성사업 계획과 화훼종합센터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제안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안)에 주택 및 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 상업, 업무, R&D용지 약 13만㎡, 화훼종합센터부지 약 4만 8천㎡를 포함해서 강남벨트 조성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과천 강남벨트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은 과천·주암동 지역이 “기업

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용역을 중지하고 타절준공 처리하였으며, 그동안 집행한 용역비 1억 2,600만원을 LH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용역 결과를 LH에 이관하여 “과천 강남벨트 조성 기본구상”이 뉴스테이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과천시의 계획과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은 그동안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SPC 설립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사업성 저하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최근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내 포함된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은 민간사업 추진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시가 참여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시재정이 여의치 않아 직접 투자를 통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는 화훼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화훼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화훼인과 국토부, LH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재건축사업과 함께 보급자리 주택사업, 뉴스테이 사업의 동시추진으로 아파트 가격하락과 역전세난이 우려됨에 따라 뉴스테이지구의 입주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시기나 입주시점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과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면 2021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뉴스테이의 입주시기와 지금 진행 중인 6개 재건축단지가 입주 완료되는 2020년과는 약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5개 단지의 재건축 계획에 따른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서도 현재 일정대로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주택의 수요와 공급, 가격 등이 결정되는 시장 경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의 시기 조정 등은 시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재건축 및 뉴스테이 사업 추진상황과 부동산 가격 등 우리 시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기적절한 방안을 도출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정 손실에 대해 과천시 대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우리 시는 시군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약 495억 원의 재정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확보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관련 공모사업 등 다양한 국·도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향후 5년간 재정 추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교부세 확보상황 불투명,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2018년 이후 3년 정도는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및 재건축 사업 등이 완료되는 2020년부터는 재정이 완만히 증가하다가 2021년 이후부터는 현재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향후 3년간 재정 충격 완화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으로 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 사전제거, 반복적 불용,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 가능 예상액만 계상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자부와 경기도 등을 통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최대한 확보 하겠으며 한국마사회 협력사업의 일환인 지역협력기금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교부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 건의를 통한 중장기적인 세수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경마장 본장이 있는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징수교부금 상향, 관내 대규모 공공기관 과세 신설 등 제도개선 건의를 적극 추진하여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식정보타운 분양사업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시 예산집행내역과 향후 투입할 예산이 얼마인지와 분양과 관련해서 10, 11, 12 필지 미분양 시 대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과천시와 LH는 2015년 5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월 3일 경기도시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시공사에 지급한 예산은 2015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지공급지침 전략수립 용역비로 1억 6,800만원, 2016년도에 홈페이지 제작, 광고시안 제작 등 홍보비 등으로 4억 4,100만원 등 총 6억 900만원이며, 2017년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분양사업 추진을 위해 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가 아닌 분양업무의 일부를 수탁한 기관이며 기업유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기반산업용지 중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10, 11, 12 필지도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계약기간 내 미분양 시 LH와 협의하여 계속분양, 용도변경, 계약해제 및 공공용지로의 활용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지식정보타운 내 역사건립시기와 비용, 공공용지확보 및 예산마련, 인구 수 증가로 복지비용 급증에 따른 자원마련 등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지하철 역사는 공동주택 입주시기인 2021년에 개통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850억 원으로 과천시 268억 원, LH가 582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천시 분담금은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원마련은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수익금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공공용지와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비용은 2020년 이후 재정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복지비용과 공공용지 매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형사업들을 감당해 나갈 만한 행정력을 어떻게 뒷받침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과천시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와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강구해가며 과천시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시 자체적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과천축제와 관련하여 함평 나비축제와 보령 머드축제 등 다른 지자체의 지역축제 성과에 대한 생각과 과천축제가 개선해야 할 점,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과천축제는 1997년 세계마당극 잔치로 출발하여 2000년 과천마당극제, 2003년 과천한마당축제, 2012년 과천축제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는 새로운 콘텐츠 필요성에 따라 명칭공모를 통하여 과천누리馬 축제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콘셉트 및 콘텐츠로 시작한 과천누리馬축제는 말 콘텐츠에 대한 일부 시민의 거부감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축제는 지역사회 소통의 장으로 창의성을 높여가는 것이며 주민의 자긍심을 불러 넣어 주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육성하는 것이 지역축제 미래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

니다. 과천누리馬축제가 과전형 문화관광축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부대행사와 공연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여행·숙박·음식, 나아가 큰 틀의 문화관광 산업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도를 파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함평 나비축제는 곤충이라는 콘텐츠로, 보령머드축제는 머드를 주제로 한 관광·체험형 콘텐츠로, 가평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재즈라는 장르를 관광 인프라로 구축하여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렇듯 이들 축제는 한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쳐 10년을 넘어 20년 이상 축제로 발전시켜왔습니다.

과천누리馬축제가 문화관광형축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적극적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 축제전문가의 창의력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목표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 명성의 관광형 축제들이 단 몇 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자원 활용 및 문화브랜드 제고와 과천누리馬축제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큰 틀에서 문화관광진흥 5개년 계획 용역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외부 기관 공모, 관내 유관단체 협찬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2017년 과천누리馬축제 예산도 2016년 대비 4억 9천만 원을 줄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는, 유감스럽게도 2017년도 과천누리馬축제 예산 전액이 삭감돼서 내년도 축제 예산 공모 등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20년간 이어져 온 축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무국의 인건비 등만 반영하고 행사비는 전액 삭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3회에 걸쳐서 시와 축제사무국, 시의회 특위와 협의해서

추진한 용역 등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실 때는 나름의 대안에 대한 생각도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의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 축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시장이 취임하면서 거리극축제의 명성이 다른 도시로 빼앗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거리극축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축제와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3년도에 과천축제 5일간 했습니다. 집객인원이 10만 명 정도입니다. 2014년도 나흘, 2014년부터 하루 줄였습니다. 2014년도에 누적인원 9만 5천명, 2015년도 15만 명, 올해 19만 9천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공연작품도 국내공연 2013년도에 21개 작품이었습니다. 2014년, 제가 취임하면서 28개 작품으로 국내공연 늘렸습니다. 작년 2015년 25개 작품이었습니다. 2016년 올해 국내공연 14개 작품으로 줄였습니다. 다만 기획제작공연이 6개로 대폭 늘었습니다. 과거 2013년 기획제작공연 없었습니다. 작년에 ‘달려라 똥말’이라고 제작작품 하나 있었고 올해 6개가 들어갔습니다.

시민참여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13년도, 제가 알기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글썽요, 시민의 범위를 공연단체 이런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시민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페스티벌에 동 주민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페스티벌에 참여해 주셨고 또 학생문화예술큰잔치라고 해서 관내 학생들이 그 축제에 다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총의 회원들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나름대로 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만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했던 축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축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과 다시 한 번 대안을 갖고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미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합니다. 문화재단은 기존의 재단법인 과천축제, 추사박물관, 시립예술단 등 과천의 문화예술을 총괄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이를 통하여 과천누리馬축제와 과천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의회에서도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시는 등 문화재단에 대한 발전방안 의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시에서도 문화재단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흥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현재 과천시는 변화를 위해 커다란 시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모태로 한 미래의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성장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각종 규제와 재정력의 한계로 자체적으로는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대형사업 추진이 더딘 실정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찾는 자만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500여 공직자는 과천시와 미래 세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모든 과업을 순조롭게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 번 이흥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과천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17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 기 간 : 2016. 9. 26. ~ 9. 28. (3일간)
- 위원장 : 제갈임주 • 간 사 : 이수진
- 위 원 : 문봉선, 안 영, 고금란, 윤미현



## • 의결사항 -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3건

| 연번 | 안 건 명                                         | 의결결과 |
|----|-----------------------------------------------|------|
| 1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 정  |
| 2  | 과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 안  |
| 3  | 중앙단독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원 안  |
| 4  | 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원 안  |
| 5  |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원 안  |
| 6  |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7  |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 안  |
| 8  |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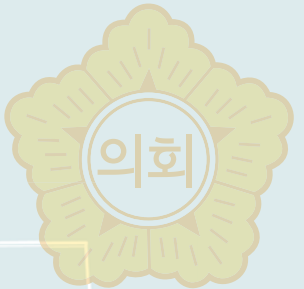
| 연번 | 안 건 명                                               | 의결결과 |
|----|-----------------------------------------------------|------|
| 9  |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10 | 과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 수 정  |
| 11 |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12 |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13 |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14 |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15 | 과천시 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
| 16 |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 수 정  |

## 주요 의정활동 사 진





- ① 제21회 과천화훼전시회 (9.21.)
- ② 제21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본회의) (9.28.)
- ③ 과천시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10.8.)
- ④ 2016년 하반기 의원 및 직원 연수 (10.14.)
- ⑤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관련 기자회견 (11.1.)
- ⑥, ⑥-1 정책토론회 - 화훼산업의 위기와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의 미래 (11.18.)
- ⑦ 시의회 엘리베이터 시승식 (11.29.)
- ⑧, ⑧-1 2017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 (12.2.)
- ⑨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2.5.)
- ⑩ 신년 현충탑 참배 (1.2.)
- ⑪ 의회 간담회 개최 (1.10.)



##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

### 회의 종류

- **정례회** : 연 2회
  - 1차 정례회(6월중)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의 승인 등
  - 2차 정례회(12월중)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 등
- **임시회** : 필요시 수시 개최
  - 1월중 :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위 등
  - 3월중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 4월중 : 추경예산안 및 조례심사 특위 등
  - 9월중 : 추경예산안 및 조례심사 특위 등

### 운영 일정

| 회 수   | 기 간                     | 내 용                                                          | 비 고             |
|-------|-------------------------|--------------------------------------------------------------|-----------------|
| 제219회 | 2017.<br>1월 중<br>(7일)   | 2017년 업무보고 등<br>- 주요현황 및 추진사항                                | 임 시 회           |
| 제220회 | 2017.<br>3월 중<br>(1일)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임 시 회           |
| 제221회 | 2017.<br>4월 중<br>(5일)   | 추경예산안 및 조례심사 특위와<br>행정사무감사 1차 특위<br>-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안 및<br>자료요구 | 임 시 회           |
| 제222회 | 2017.<br>6월 중<br>(16일)  | <b>제1차 정례회</b><br>-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의 승인 등                       | 정 령 회<br>18일 이내 |
| 제223회 | 2017.<br>9월 중<br>(5일)   | 추경예산안 및 조례 심사 특위 등                                           | 임 시 회           |
| 제224회 | 2017.<br>12월 중<br>(17일) | <b>제2차 정례회</b><br>-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br>예산안 심사 특위              | 정 령 회<br>17일 이내 |

※ 상기일정은 추가 임시회 소집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료구독 신청 안내

# 과천시의회

GWACHEON CITY COUNCIL NEWS

## 소식

과천시의회에서 발간되는 의회소식지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사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구독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과천시민

• **신청방법**  
신청서 서식 작성 후 과천시 의회사무과 제출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의회홈페이지(<http://www.gccouncil.go.kr>)

☞ 의회자료실

☞ 공개자료실

**방 문**

과천시 의회사무과

**FAX**

02-2150-1550

**우 편**

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 1-3)

**스캔 후  
E-mail제출**

gccouncil@  
korea.kr

전화문의 02-3677-2524